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어

송병탁 / 서울대 교수

새해에는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가 본격 추진되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지방화도 본격 추진된다. 그리고 280여 개의 시, 군, 구 가운데 35 개의 군과 35 개의 시가 합쳐져서 「35 개의 통합시」가 새로 탄생된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지구촌 시대이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이고, 매일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두 개 이상 나올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빠른 기술 혁명 시대이며,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전세계에 무역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 연구의 세계적 권위 기구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 포럼(WEF)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 결정 요

인은 사회 간접 자본, 과학 기술, 금융 및 인적 자원의 네 가지인데 이를 모두 국제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사회 간접 자본의 수준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화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돈, 상품,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해외 진출량이 외국 것의 국내 진출량보다 많게 되어야 한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국제화연구팀도 국제화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국의 지방화는 지방의 상품,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 모두가 세계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또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도시 전체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먼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등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제주의(in-

ternational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세계화(cosmopolitanization)는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많이 유행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는 지구촌주의(global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중 국제화는 주로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세계화는 세계은행, 세계식량농업기구 등의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구별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입장에서 참여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반면에 지구촌화는 모든 나라는 하나의 지구촌의 구성 부분이 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세계화를 지구촌화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국제화와 지구촌화의 뜻을 합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세계화가 한국의 돈, 물건,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가 세계 초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바탄 지방,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삼각지대」를 만들어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잘 추진함으로써 이웃 나라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東京) 一極 중심의 세계화를 나고야(名古屋)지방과 규슈(九州)지방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마에 겐이치(大前 研一) 등이 주동이 된 평성유신회(平

成維新會)가 일본을 인구 5백만에서 2천만까지의 11 개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를 하나의 準독립된 지역으로 하려는 지방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가 너무 큰 러시아, 중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등은 모두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11 개의 지방으로 분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한국도 몇 개의 대형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방의 규모는 경제적 기반이 잘 갖추어질 수 있고 재정 자립도 어느 정도 가능하며 또한 세계화도 잘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 얼마전 무역의 불모지였던 강원도가 속초에서 개최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 및 일본 톳토리현(馬縣) 등 環동해 지역의 지사 현장 및 성장(省長)들간의 회의는 앞으로 한국이 지방을 주역으로 하여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